

언니들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도 내 곁엔 은미 언니뿐!



작가가 핑크내서
기자가 발로 그린
벼레별툰
By 송이송

요 망 한 망 상

나는 드라마의
서브 남주가 좋다?
(주연은 아니지만
흐름 상 중요한 남
자캐릭터)

연애의 발견(성준) 최고의 사랑(윤계상)

드라마 [연애의 발견]을 보셨는지? 로맨틱코미디를 좋아하는 나는 한창 재밌게 보다가 말았다. 내가 좋아하는 커플이 결국 깨질 것 같아서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드라마 속에서 다정하고 배려할 줄 알며 여주인공 한여름(정유미)에게 섬세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현재 애인 남하진(성준)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결국 한여름과 한여름의 첫사랑 강태하(에릭)가 이어지고 남하진은 서브남주로서 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역할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채널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돌린 채널 개수를 세기 힘들다. 왜냐하면 나는 거의, 언제나, 항상, 서브 남주(다른 말로 여주인공에게 사랑을 퍼붓다 결국 버려질 남자) 편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나는 드라마 [최고의 사랑]하면 여주인공 구애정(공효진)과 그녀에게 사랑의 눈빛을 있는 힘껏 쏘아대던 부드러운 한의사 윤필주(윤계상)를 떠올리지만 드라마의 결론은 구애정과 독고진(차승원)의 결혼이었다.

서브 남주가 아니더라도 [유나의 거리]의 남자주인공 김창만(이희준)이나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방귀남(유준상)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 이런 캐릭터가 주인공을 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 주인공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이런 캐릭터는 서브 남주의 위치로만 남는다. 내 취향이 비주류인가?

왜 드라마 속 여자들은 서브 남주의 애정공세보다도 남자 주인공의 변덕스러움을 선택할까? 왜 드라마 속에서 속도 깊고 한결같이 다정하고 사랑표현도 잘 하는 남자들은 서브 남주라는 이유로 쓸쓸하고 애처로운 뒷모습을 남기나? 채널 돌리지 않고 1회부터 결말까지 볼 수 있는 로코! 그런 로코를 보고 싶다.

[유나]

별 별 신 문

2014년 12월 Dec.

별 별

★★ news paper

| 발행일자 |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 발행인 | 별별신문_송.용.유나.송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서바이벌 가이드 화 류 계 Q n A

Q 돈을 갚았는데 또 갚으래요. 어떡하죠?

A 일단 성매매를 전제로 한 모든 채권은 무효,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 만약 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갚았다면 그 통장 내역을 돈을 갚았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 문제가 안 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 현금으로 갚았다면 갚았다는 걸 증명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빌린 돈이 성매매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빌렸을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공증서류는 작성 당시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차용증이나 공증서류가 없어도 돈을 빌려줬던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채무부존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없기 위해 돈을 주고받을 때는 무조건 통장으로! 돈을 갚고 나면 작성했던 차용증을 돌려받기! 돈을 다 갚았다는 증서를 도장 찍어서 받아놓기! 등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능하고 법적인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성매매상담소(02-953-6279/6280, 1366) 연락처를 알고 계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유나]

? 소문 말고 진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loom2003@naver.com)

연애, 그 복잡함에 대하여

FALL IN LOVE

밴드 크라잉넛이 노래했다. "사랑은 어려운 거야. 복잡하고 예쁜 거지. 잊으려면 잊혀질까. 상처받기 쉬운 거야" (닥쳐!)"

녹아 내릴 것 같은 달콤함에 취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하는. 그 사람 없이는 죽고 못 살겠다가 그놈만 보면 죽어버리고 싶게 하는 인류 최대의 과제, 연애. 이번 별별신문 14호에서는 언니들의 연애 얘기를 들어보았다.



GOOD

Q. 이럴 때 내 남자, 사랑스럽다!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정말 새로운 모습을 봤어. 나는 막 너무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 일처럼 나서서 척척 해결하더라고. 이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싶더라. 정말 고맙고 든든했어. (복희, 37세, 5년 차 연애 중)

글쎄, 특별히 이래서 좋다 그런 게 있을까? 커다란 선물을 줘서,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일 끝나고 그냥 저녁에 커피숍에서 둘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하는 평범한 일상 같은 거. 그 속에 내가 있고 이 속에 네가 있구나. 지금 내 옆에 네가 있다는 거. 그런 거지 뭐. (서영, 32세, 4년 차 연애 중)

사진 | 영화 [만추]의 장면들

WHAT HE KNOWS

Q. 내 남자는 나의 직업을, 안다? 모른다?

나는 주로 업소에서 만났어. 손님이 애인이 된 케이스? 속이고 만나면 오래 못 가더라고. 근데 누굴 만날 때 돈이 개입이 되면 안 좋더라. 내가 금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받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섹스 하기 싫어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면 내가 피곤할 때는 안 하면 그만이니까. (주희, 40세, 싱글)

난 한번도 말한 적 없어. 그걸 왜 말해? 일하는 건 당연히 무조건 숨겨야지. 일하다 만난 남자라면 몰라도. 남자친구한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절대절대 그건 숨겨야 돼. (유나, 29세, 2년 차 연애 중)

난 다 봤어. 동대문 옷 가게나 노래방 카운터 본다고 둘러댄 적도 있긴 한데, 숨기고 만나니까 거짓말할게 너무 많더라. 밤에 없어지는 이유, 통화 안 되는 이유. 또 남친이랑 내 친구들 만나게 해줄 때도 뽀록 날까 봐 애들 단도리 시켜야 되고 말조심해야 되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 평소 일할 때도 남자들한테 맘에 없는 소리하고 웃어주고 해야 되는데 남친한테 까지는 그러기 싫어. (서영, 32세, 4년 차 연애 중)

BAD

Q. 이럴 땐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음!!

현실감각 떨어질 때?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단칸방에 라면만 먹어도 좋아.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 매일 라면만 먹으면 질려 할 거면서. (서영, 32세, 4년 차 연애 중)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줬더니 싱겁다느니 짜다느니 잔소리할 때 진짜 짜증나지. 가끔은 진짜 '네가 차려먹어!' 그러고 확 밥상 엎어버리고 싶어. (복희, 37세, 5년 차 연애 중)



내 남자에 대한 달콤달콤한 애길 하실 줄 알았는데 이미 몇 년을 지지고 볶아왔던 이 언니들에게 연애란 생활에 가까웠다. 이 세상에 '그' 밖에 없는 듯 불타오르는 열정의 시절을 지나 못 보일 꼴 다 보이며 신뢰가 쌓인 뒤 찾아오는 안정감도 꽤나 달달한 듯 했다.

언니들의 연애는 어떠하신지?

[용]

별별신문 이용 안내 (원고료 지급)
유흥업소 관련 소식, 직접 겪으신 다양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eloom2003@naver.com
010-8230-6279

심리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010-8230-6279 마음이 힘들어서 끔찍하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 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모두모두~! 언제든 연락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립니다.

이 바 닥 뉴스



파주 용주골 재개발, 대구 자갈마당 폐쇄 요구, 성매매 장소 제공자 공동고발 :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 변화 예감

파주시 주민들은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대구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는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자갈마당'의 조속한 폐쇄를 요구했다. 더불어 업주와 건물주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과 여성긴급지원 조례 제정도 대구시에 주문했다. 전북 지역에서도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들에 대해 공동고발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역시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성매매 여성 행진시위

프랑스 정부에 성구매자 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도보시위에 나섰던 전직 성매매 여성 로장 이세(57)가 10월 12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 도착, 8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마감했다. 이세는 22년간 성판매를 했으나 2009년부터 성매매 폐지 운동을 하고 있다. 이세는 "성매매는 권리가 아니다. 아무도 여자를 사거나 팔 권리가 없다"며 "우리가 성매매를 끝내기를 원한다면 손님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의 자녀들도 마지막날 도보 행진에 동참했고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끝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엄마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세 언니 파이팅!! [숨]